

그 사람 지금은

(37) 송언중 前 광주시장

전라도 역사이야기

-완도 신지도

93년 장관 퇴임 후 사법연수원 입교 화제

“공무원은 국민생활을 밝고 윤택하게 하는 직업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인생을 대과없이 마쳤고, 아직도 직업공무원이라는 생각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선시대 광주시장과 체신부장관 등 주요 공직을 거치고, 선거를 통한 민선 초대 광주시장을 지낸 송언중(71)씨를 만났다.

1961년 제13회 고등고시(행정과)를 통해 공직에 발을 디딘 송 전 시장은 공무원 생활 30년, 선거직 시장 생활 3년 등 총 33년을 공직에 몸 담았다.

선거를 통해 민선 초대 시장이라는 광역단체장 이상의 의미를 갖는 상징적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정치인이 아닌 공무원 인생이었다고 잘라 말한다.

이 같은 공무원에 대한 일념은 부모님의 가르침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평소 “너는 자라서 훌륭한 목민관이 돼야 한다”는 당부만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본인도 자신의 성격상 행정공무원이 맞다고 생각했다. “행정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봉사이며, 국민을 위해 새롭고 창조적인 시도를 해볼 수 있지만 사법 분야는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 잘 잘못을 가려야 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불법행위나 문제 있는 사안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적성에 맞지 않았어요”

이 같은 그가 전남도청에서 고등고시 합격 후 수습사무원으로 재직하던 1963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게 된다. 당시 서울 대법대 출신들은 고등고시(행정과) 합격 후, 사법시험에 다시 합격하면 법조계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시행정과 패스 전남도청 근무중

1963년 사법시험도 응시 합격”

하지만 그는 공무원 신분이 불안했던 시절이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자격증 확보 차원에서 사법시험을 봤다고 거리낌없이 말한다.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운이 좋아 공무원으로서 시장, 지사, 장관, 거기에 민선시장까지 했으니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남보다 빠르지는 않았지만 큰 실수 없이 공직을 마친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는 고시 합격 후 1962년 전남도청 수습사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한다. 8년을 근무한 끝에 1970년 서기관으로 승진, 장성군수와 장흥군수를 거쳤다. 이후 청와대 새마을담당관실 근무, 내무부 행정과장 등을 거쳐 전남 광주시장, 경남부지사, 경기부지사 등 다른 동기생에 비해 좀 늦기는 했어도 확실한 경력을 쌓아갔다.

그런데 1982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회정화위 제3부장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공직생활 최대의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이미 상당수 후보들이 지사로 나간 상태였고, 자신이 데리고 있던 사람들마저 지사로 나가는 상황이 되자 공직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마저 했다고 한다.

하지만 애들이 다섯이나 되고, 물려받거나 모아 놓은 재산



1996년 여름, 수해 위험지구를 둘러보고 있는 송언중 전 시장(맨 오른쪽).

가 없던 일로 당시 상당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렇게 천직으로 알았던 30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자신이 예정했던 대로 변호사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정치나 선거직에 진출하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조직을 관리하거나 활동자금 등 돈을 다루는 일에도 무관심, 무능력하기까지 했다고 고백한 그가 1995년 처음 실시된 광주광역시 시장선거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 입후보해 당선된다.

“지하철은 자가용 없는 서민들의 발 광주 교통난 해소에 꼭 필요한 시설”

민선시장 재임 3년을 회고하면서 지하철 1호선 착공 문제에 이르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광주 지하철이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시 적자재정의 주범으로 지목될 때마다 착공시기의 시장이 거론되는 것을 인식한 듯 했다.

그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도심지역 서민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지하철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단언했다.

“시 재정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지하철과 같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면 시민들의 불편과 교통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하철은 자가용을 갖지 못한 서민들의 발이며, 광주시 교통문제 해결에 없어서도 안될 시설입니다”

지하철 운영 적자 문제는 광주는 물론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불가피하며, 지하철 건설은 도시 인프라로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당시의 결정에 한치의 후회도 없다고 역설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사진=위직리기자 jrw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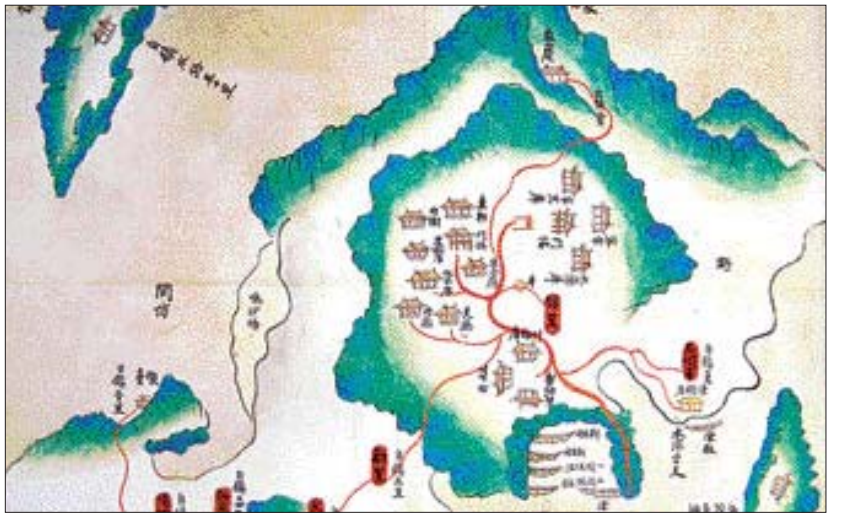
조선시대 말 방목했던 목장 지금은 ‘명사십리’로 알려져

지난 1969년 초 해남 북평면 남창에서 달도를 거쳐 완도와 다리가 놓였다. 2005년 말 신지도는 완도와 연륙되어 40분 뱃길이 5분 차로 단축됐다. 이듬해 120만 명이 신지를 찾았다. 육로를 통해 갈 수 있는 호남 최대 규모인 명사십리해수욕장을 찾는 피서인파였다.

신지도는 강진현 관할이다가 1896년 신설된 완도군 소속 면이 됐다. 본디 코끼리 코처럼 동서로 길게 생겨 ‘지섬’이었으나, 나주 지도와 혼동을 피하려 ‘신지도’라 했다고 한다. 15세기 동국여지승람에 처음 등장하는데, 新智島로 기록돼 있다. 18세기 이후 문헌에는 薪智島로 쓰고 있다.

섬의 중심부인 독고재(獨高臺)를 중심으로 고인돌이 80여기 분포한다. 조선시대 말을 방목하는 목장이 있었다. 대곡리 삼마(三馬)마을은 옛 상마동(上馬洞)으로 양마지(養馬地)였다. 1681년 송곡리 옛 노루목(獐項串·장항관)과 진리(鎭里)에는 수군 만호진이 설치됐다. 남서쪽 가리포진과 북동쪽 고금도진의 사이로 최고봉 상산(象山·324m)의 지세를 이용한 천연 요새지다.

1872년께 군사진지를 표시한 강진 신지도 진지도(康津薪智島鎭地圖)에는 동헌과 내아를 비롯해 환향고, 세미고, 사령청, 이청, 장청, 객사, 군기고, 화약고, 샘(井), 집물고, 웅물고가 그려져 있다. 호남읍지에 따르면 귀선(龜船)과 병선 각 1척, 사후선 2척, 군관과 진리(鎭吏) 각 35명, 사령 25명, 수군 384명이 배치됐다. 현재 1873년 세운 만호 박희화(朴熙和) 청려비만 부두가 제방 위로 옮겨져 있다.



강진신지도진지도(康津薪智島鎭地圖)상의 신지도.

경평군 이세보(李世輔1832~1895)는 안동김씨 세도정치 아래 관료의 부패와 사회현실의 불합리를 비판하다가 1860년 신지도로 유배된다. 천리 유배 여정과 2년 동안 유배지 생활은 그가 남긴 신도일록(薪島日錄)으로 전한다.

한성을 출발하여 15일 만에 신지도 도착했다. 장성 갈재를 넘어 북창을 거쳐 나주 영산강을 건너 영암에서 숙박 다음날 강진읍에 도착, 뱃길로 마도진 고금도를 거쳤다. 경평군의 한 서인 울음소리가 모래등에서 울어 ‘울모래(鳴沙場)’가 됐다는 설도 있다.

우두(牛痘)연구를 했던 지석영(池錫永1855~1935)도 1887년 신지도에 유배됐다. 그의 호 송촌(松村)은 한글로 예방의학자인 ‘신화사설’을 썼던 송곡에서 따다. 장석천은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지도했고, 임계갑은 신지도감소사건으로 알려졌다. 이를 거러 1994년 대곡리 구릉에 신지항일기념탑을 세웠다.

1970년대 김, 1980년대 미역과 톳, 1990년대 어류축양사업이 주류를 이루는 신지도는 현재 1천4백 세대 4천여 명이 살고 있다. 2천여원 규모의 광어를 알리기 위해 명에 넘치(廣魚)면장을 모집했고, 조선대 부설 해양생물연구소가 곧 문을 여니 바다목장이 될 터다.

/김경수(사향도문화진흥원장)

CBS TV광주 42번 60번, 나주 60번, 사남면 59번, 담양 42번. TV광주 42번 60번, 나주 60번, 사남면 59번, 담양 42번. 영·혼을 사로잡는 힘. 광주CBS TV. TV광주 42번 60번, 나주 60번, 사남면 59번, 담양 42번. TV광주 42번 60번, 나주 60번, 사남면 59번, 담양 42번.